불황기에 돋보이는 알뜰한 광고전략

일간지와 광고전단을 활용한 출판광고 지상전 ②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일간지의 기업광고가 줄고 있다. 덕분에 주말에야 광고지면을 얻었던 일간지 출판광고가 최근에는 주중에도 게재되고, 어느 신문의 경우 출판광고가 10면 이상을 차지한 날도 있었다. 또한 신학기를 겨냥한 중고생 학습지 출판업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물량을 광고에 투입하여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일간지를 출판광고로 도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도매상 부도나 제작비 상승으로 출판계에 내우외환이 일자 주춤주춤 광고공세는 줄어들고 있다. 신간 발행도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전단광고와 홍보전단 등의 광고도 많이 줄었다. 출판사들의 광고를 모아 게재하는 연합광고를 IMF시대에 효율적인 광고로 활용할 만하다. 지금까지 연합광고는 대형서점이 'ㅇㅇ문고가 권해 드리는 …' 등의 명목으로 게재되고 있지만 불황기에 살릴 만한 알뜰지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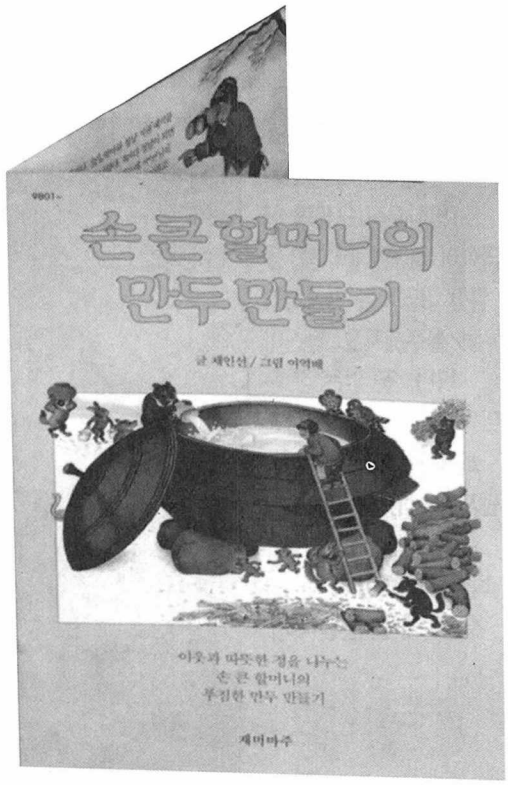
출판계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출판인포럼'이 주축이 되어 출판인들의 중지를 모은 '새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가 5단통 광고로 게재된 것도 이례적인 일로 출판계의 심각한 상황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

출판광고에 책사진보다 저자 사진을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현암사에서 출간한 베른하르트의 《옛거장들》, 《비트겐슈타인의 조카》는 저자의 사진을 클로즈업하여 실었다. 이 경향은 《세익스피어도 바퀴벌레를 보고 웃었을 꺼야》의 저자 문혜영씨의 경우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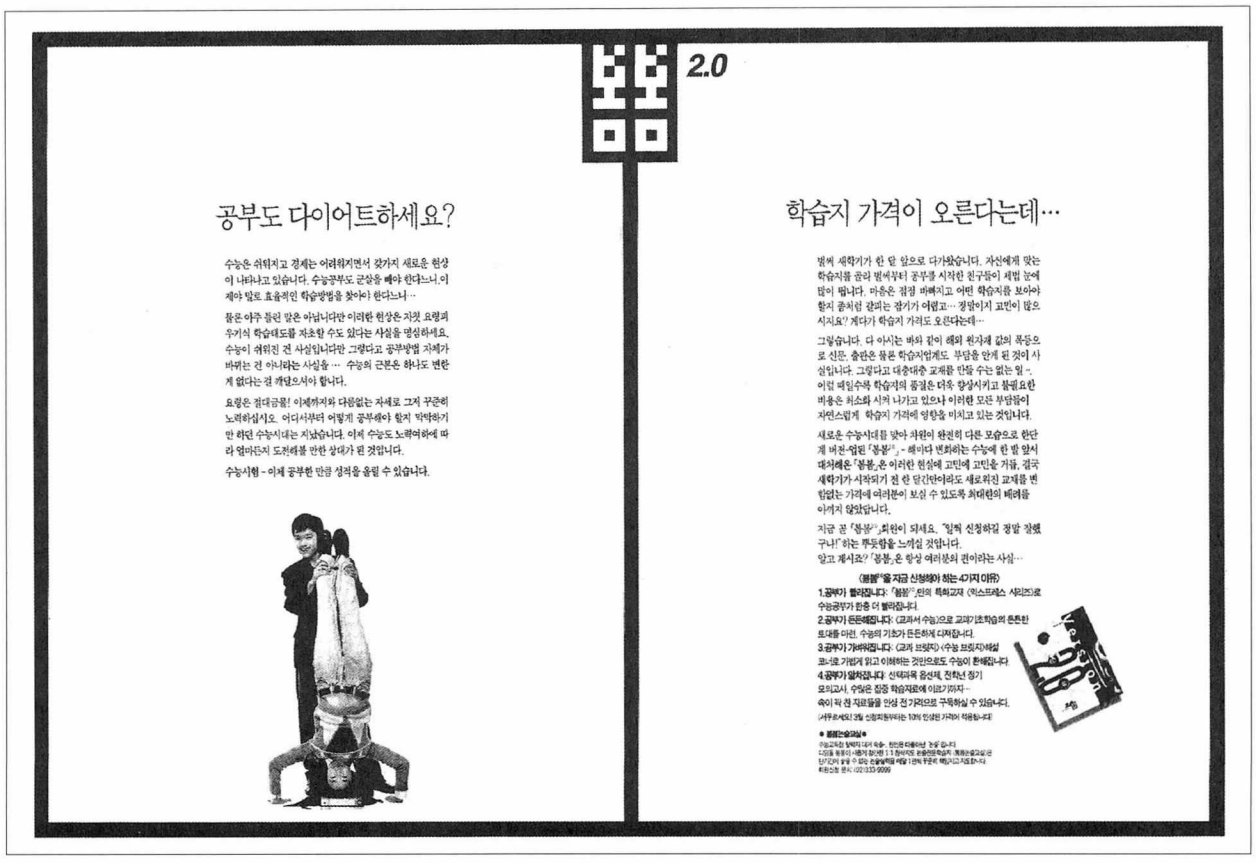
광고의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견고딕체의 광고문구를 행간없이 빽빽하게 채우는 방법이 꽤 활용되고 있다. PCS광고를 비롯, TV광고에서 차용한 듯한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등의 광고는 문자로 광고지면이 꽉차 보여서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그 나름대로 긴박감을 준다. 임철우씨의 《봄날》광고에 이어 3단통 광고도 꽤 활용되는 편이다. 일간지 하단에 자리잡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같은 광고가 나즈막이 말을 건넨다.

전단광고 중에는 자작나무에서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만든 광고전단과 들녘의 〈BOOK NEWS〉가 새롭다. 컴퓨터 서적업계는 길벗의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에 이어 〈단숨에 끝내기〉를 인기 카투니스트 박광수씨의 그림을 곁들여 게재했다. 어린이 서적의 아기자기한 홍보전단도 눈에 띈다.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재미마주)와 《하늘을 나는 양》(드로와 안젤)이 각기 포스터와 예쁜 그림엽서로 서점가에 선보이고 있다.

— 마정미 기자



재미마주의 그림책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포스터와 홍보전단. 채인선씨의 동화와 이억배씨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그림을 이용해 만들었다. 희화적인 그림에 전통 부엌과 살림살이가 담겨 정감 있다.



디딤돌의 학습지 '봄봄' 일간지 광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부도 다이어트 하세요? 학습지 가격이 오른다는데'라는 카피로 학습지 지출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엄마는 항복. 더이상 과외는 못시킨다'라는 직설적인 타광고에 비해 점잖다. 여백을 활용한 깔끔한 편집이 돋보인다. (98년 2월 8일 조선일보)

한 컷의 만화가 무수한 문자보다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다. 컴맹 탈출을 결심한 주인공이 '단숨에 끝내주마' 하고 결연하게 주먹을 쥐는 박광수씨의 그림이 〈단숨에 끝내기〉시리즈를 돋보이게 한다. 시리즈 제목처럼 '무작정 따라하며' '단숨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98년 1월 8일 한겨레신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씨의 장편소설 《하늘이여 땅이여》의 일간지 광고. 책이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편집했는데 책사진이 뒤집혀 있어 묘한 입체감을 준다. (98년 1월 24일 조선일보)

자작나무의 광고전단.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만든 8면의 이 전단은 앙헬레스 마스뜨레따의 소설집 《여우가 늑대를 만났을 때》를 1면으로 해서 자작나무가 펴낸 여러 책들의 광고를 빼곡하게 실었다. 만화체의 일러스트가 독특하다.

발상이 신선한 존 그리샴의 《파트너》 일간지 광고. '튀어라 튀어! 존그리샴과 함께 스트레스 대탈출' 이라는 카피와 함께 레이아웃 한가운데에 가방을 들고 뛰어가는 정장 차림의 남성 사진을 담았다. 독자를 궁금하게 하는 보디카피도 흥미를 끈다. (98년 1월 10일 한국일보)